

문화예술 · 스포츠 발전 '맞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북현대모터스, 업무협약... 다양한 콘텐츠 홍보 · 교류 등 협력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현대모터스FC와 문화예술 발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스포츠와 예술을 연결하는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상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연 · 스포츠 연계 상호 홍보 마케팅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관 운영 관련 상호 자문 및 지원 ▲유료회원 증대 및 혜택 제공 협력 ▲정보 교류 및 홍보물 관련 내용 게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북현대모터스FC 허병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더욱 다양한 콘텐츠의 홍보 활동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당 서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과 프로축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현대모터스FC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뉴스1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현대모터스FC와 문화예술 발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당 제공)



JB문화공간, '황덕호의 재즈수첩'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재즈칼럼니스트 황덕호의 재즈수첩 프로그램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KBS라디오 '재즈수첩' 진행과 경희대학교에서 재즈 역사 강의를 맡고 있는 재즈칼럼니스트 황덕호씨가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재즈를 한 걸음 깊이 들어가 이해하고 들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첫 날인 지난 9일에는 재즈의 역사와 감상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16일에는 색소포니스트 김현일씨가 이끄는 김현일 콰르

텟 공연과 더불어 황덕호씨의 해설이 진행됐다. 'summer time'을 시작으로 'recado Bossa Nova' 등 주옥같은 재즈명곡과 'Happy Birthday to you', 'Over the Rainbow' 등 낭만적인 재즈 선율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힐링의 시간이 됐다.

한편 JB문화공간은 오는 7월 10일 임경숙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건강밥상' 특강과 7월 14일 앙드레 전의 탱고 in Summer Night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매주 목요일 '클래식 재즈 음악 감상' 이외에 정기적으로 '홍차 마스터클래스', JB 영화감상, JB클래식 산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예술계 빛낼 신진예술가 선정

전주문화재단, 박지원 · 황지혜 · 박경재 · 김승주 · 김경은 5명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1년 전주 예술계를 빛낼 신진예술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용가 박지원, 현대무용가 황지혜,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박경재, 시각예술작가 김승주, 뮤지컬배우 김경은 등이

다. 올해 8회째로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총 25명의 청년예술가(만 19세~만 39세)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5인을 선정했다.



(재)전주문화재단은 한국무용가 박지원, 현대무용가 황지혜,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박경재, 시각예술작가 김승주, 뮤지컬배우 김경은 등 2021년 전주 예술계를 빛낼 신진예술가 5명을 선정했다. /장은성기자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각화했다.

먼저 처음발표지원에 각 400만 원, 유망작품 지원에 각 600만 원의 작품지원금을 시상금 형태로 지급하며, 선정자들은 복잡한 정산 서류 없이 작품의 실현과 결과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면 된다. 또한, 전주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시설의 연습공간과 작품발표 공간, 전문가 비평워크숍 등을 지원한다.

박지원 씨는 '숨'이라는 제목으로 마스크 안에서 쉬는 숨, 불안하고 흐트러진 숨, 안도의 한숨 등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오늘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우리들의 일상을 한국무용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황지혜 씨는 2021년에 드디어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현대무용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박경재 씨는 'Electric City, 전주'를 선보인다. 박경재 씨는 'Electric City, 전주'를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주 시민들을 위해 전주의 공간과 풍경을 영상과 소리(음악)로 함께 나누는 교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주 씨는 'The Little Prince Day-dreaming'으로 미술작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자 한다. 김경은 씨는 '러블리'와 '어글리'가 합쳐진 이름 '러글리'라는 캐릭터를 통해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돼 동심을 잃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와의 우정과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일깨우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기자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재즈콘서트 '호응'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전주를 찾아 매혹적인 재즈 선율로 여름밤을 수놓았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17일 웅산의 재즈콘서트가 열렸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웅산은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뮤지션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 '블루보트 라이브'와 일본 최고의 재즈 명예의 전당인 '블루노트'에 초청받

은 최초의 한국인이자 한국과 일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무대에서 웅산은 자신의 이름을 딴 '웅산밴드'의 감미로운 연주로 'Yesterday', 'Mercy', 'Take Five', '바람이 부네요' 등의 레퍼토리를 불러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관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안숙선 명창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재즈와 국악을 크로스오버 한 '쑈대머리'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